

신문기사, 소설, 영화 분석에 의한 벨에포크 시대의 아파치 연구(I)*

- 단어 '아파치(apache)'의 생성 과정 -

송 기 형

- I. 머리말
- II. 황금투구 사건 개요
- III. 3대 일간지의 '아파치' 관련 기사
- IV. 단어 '아파치'의 최초 출현시점
- V. 맺음말

I. 머리말

벨에포크 시대의 프랑스에는 아파치라고 불리는 젊은 갱패 패거리들이 사회적 쟁점이 될 정도로 큰 논란거리였다. 아파치는 당시 파리의 대표적인 우범지대라고 간주된 벨빌(Belleville)과 샤론(Charonne) 지구¹⁾에서 황금투구(Casque d'Or)라는 별명의 매춘부 아멜리 엘리(Amélie Elie)를 놓고 1901년 12월과 1902년 1월에 두 패거리의 두목 망다(Manda)와 르카(Leca)가 벌인 쟁탈전을 계기로 유명해진 단어이다. 파리의 뒷골목과 밤거리에서 암약하던

이들이 미국 인디언 아파치족만큼 잔인하고 악랄하다는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²⁾, 인종차별적인 단어라고 볼 수도 있다. 독특한 풍습과 복장을 고집하며 매춘부의 기동서방으로 먹고 살면서 강도질을 일삼는 이들은 패거리를 만들어 구역을 정하고 자기들만의 '법'을 지켰다고 한다. 당시의 주요 일간지들이 치안 확립을 위한 당국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는 동시에 신문 부수도 늘리기 위해 아파치의 범행을 경쟁적으로 또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바람에³⁾ 아파치는 곧 파리만이 아니라 프랑스 대도시들의 젊은 갱패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되어, 1914년 일차대전 직전까지 크게 유행한다. 동시에 이 기간에 붓물처럼 쏟아져 나온 탐정소설 그리고 가장 대중적인 오락매체로 자리 잡은 무성영화가 아파치의 범행을 즐겨 다루게 된다. 벨에포크 사회를 뒤흔든 아파치는 일차대전의 총동원령에 의해 전선으로 불려가는 바람에 소멸되어 버린다.

이처럼 흥미로운 집단인 아파치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는 전무하고 프랑스에서도 아주 드물다. 도미니크 칼리파(Dominique Kalifa)의 저작들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⁴⁾. 하기와 칼리파의 저작들 역시 아파치를 중심 주제로 다룬 연구는 아니다. 필자는 일련의 작업을 통해 신문기사, 소설, 영화에 묘사된 아파치의 행태를 비교분석하여 이 독특한 집단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 문화적 변용을 설명하는 동시에 벨에포크 사회를 새롭게 조망하려고 한다. 그 첫 번째로 아파치라는 단어의 생성 과정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규명해볼 생각이다. “벨에포크 시대의 사회 주변부에서 정규노동을 하지 않으려고 모든 짓을 서슴지 않는 사기꾼, 살인강도, 변두리 부랑자 또는 문을 따고 행인의 배를 가르는 악당 등을 지칭함으로써 모든 형태의 도시범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27-A00704).

1) 1860년 1월 1일에 교외 지역을 흡수한 파리는 20개 구와 80개 지구(quartier)로 재편되어 이 체제가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1개 구는 4개 지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20구(메닐몽탕)에는 벨빌, 생파르조(Saint-Fargeau), 페르라세즈(Père-Lachaise), 샤론 지구가 있다. Alfred Fierro, *Histoire et dictionnaire de Paris*(Robert Laffont, 1996), pp. 1126-1129. 제2제정 말기부터 벨빌을 범죄의 온상이라고 간주했다고 한다. 19세기 후반의 범죄 관련 통계에 따르면 벨빌의 범죄율이 파리 전체 평균보다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벨빌에 대한 나쁜 여론은 지속되었고 아파치 관련 사건들 때문에 더욱 악화된다. Gérard Jacquemet, *Belleville au XIX^e siècle*(Editions de l'EHESS, 1984), pp. 344-346.

2) 『모히칸족의 최후』로 대표되는 페니모어 쿠퍼(Fenimore Cooper)의 소설들이 불러일으킨 미국 인디언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열광이 19세기 중후반에 '나쁜 인디언' 아파치에 대한 공격으로 바뀌는 과정에 대해서는 Dominique Kalifa, “Archéologie de l'«apachisme»”, *Crime et culture au XIX^e siècle*(Perrin, 2005), pp. 44-66. 미국의 아파치족과 파리의 아파치들이 똑같이 살인과 만행을 자행한다고 질타한 대표적인 글은 『르 마탱』 1900년 12월 12일자 1면에 게재된 앙리 푸키에(Henry Fouquier)의 기명 칼럼 '아파치들(LES APACHES)'이다.

3) Dominique Kalifa, *L'encre et le sang. Récits de crimes et société à la Belle Époque*(Paris: Fayard, 1995), p. 302.

4) Dominique Kalifa, “Les Apaches sont dans la ville”, *L'Histoire*, No. 168(Juil/Août. 1993). Kalifa, *L'encre*. Kalifa, *Crime*. Michelle Perrot, “Dans le Paris de la Belle Époque, les “Apaches”, premières bandes de jeunes”, *Les ombres de l'histoire* (Paris: Flammarion, 2001), pp. 351-364..

죄를 묘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⁵⁾” 이 단어의 생성 과정에 대한 기존 연구가 부정확하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문헌은 이 단어가 1902년에 『르 마탱(*Le Matin*)』 보도부장 빅토르 모리스(Victor Morris)가 만들어냈다고 기술하고 있다⁶⁾. 1920년에 출간된 라자르 세네앙 소르본대학 교수의 『19세기의 파리 언어』를 보자.

각 시대는 범죄자와 도둑들에게 고유한 명칭을 붙인다. 오늘날 가장 널리 사용되는 voleur는 매사냥 용어였다가 16세기 초부터 이런 뜻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

voleur에 새로운 경쟁자 apache가 생긴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다. 하기가 이 단어는 도둑 외에 기동서방과 살인자라는 의미가 같이 있다. 이 이름은 어떠한 사전에도 나오지 않다가 1906년에 『신라루스도해사전 증보(Supplément du Nouveau Larousse illustré)』에 처음 실리게 된다. 파리 은어집 중에서는 1910년에 엑토르 프랑스(Hector France)의 『어휘집(Vocabulaire)』 부록에 처음 나온다.

이 단어는 1902년에 처음으로 사용한 『르 마탱』 기자 빅토르 모리스 덕에 어났다. 이 단어는 쿠퍼의 소설 『아파치족』이 불리일으킨 유행이 아주 오래 전에 지나갔는데도 급속도로 확산되었으며 오늘날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⁷⁾.

2005년에 나온 알랭 레의 『프랑스어 문화사전』이 세네앙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파치 관련 연구가 얼마나 빈약한지를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아파치(1902년에 기자 빅토르 모리스가 만들어낸 단어)⁸⁾

또 상당수의 문헌은 『르 프티 주르날(*Le Petit Journal*)』에 이 단어가 최초로 출현했다고 주장한다⁹⁾. 이 단어가 당시 백만부 이상을 발간함으로써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영향력을 발휘한 파리의 4대 일간지들에 의해 유

5) Kalifa, *L'encre*, p. 153.

6) fr.wikipedia.org/wiki/Apaches_(Paris). Perrot, “Aapches”, p. 412. Kalifa, *L'encre*, p. 153. Kalifa, *Crime*, p. 45.

7) Lazare Sainéan, *Le Langage parisien au XIX^e siècle*(E. de Boccard, 1920), p. 210.

8) Alain Rey (dir.), *Dictionnaire culturel en langue française*(Le Robert, 2005), t. 1, p. 391.

9) fr.wikipedia.org/wiki/Apaches_(Paris)

포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단어를 만들어낸 사람은 신문기자가 아니고 최초 출현 시점도 1902년¹⁰⁾이 아니라는 것이 필자가 1900-1902년의 『르 마탱』, 『르 프티 주르날』, 『르 프티 파리지앵(*Le Petit Parisien*)』을 뒤져보고 내린 결론이다. 필자가 이 3개 신문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르 마탱』과 『르 프티 주르날』은 거의 모든 문헌들이 단어 아파치의 원산지라고 지목하고 있다. 그리고 『르 프티 파리지앵』은 당시에 프랑스 최대 일간지였다¹¹⁾. 이 일간지들은 국립프랑스도서관 사이트(gallica.bnf.fr)에서 온라인 검색이 가능하다¹²⁾. 『르 주르날(*Le Journal*)』은 현재로서는 온라인 검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외되었지만, 선행 연구들을 보면 아파치 관련 기사는 많지 않았던 것 같다. 이 3대 일간지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단어 아파치의 생성 과정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밝혀내는 것이 이번 논문의 목적이다.

이 단어가 1902년의 황금투구 사건을 계기로 전파되기 시작했지만, 1900년의 만국박람회를 위한 치안강화의 맥락에서 태어났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동시에 이 단어의 생성 과정을 추적하는 작업을 통해 아파치의 실상, 소설과 영화에 의한 문화적 변용 그리고 더 나아가 벨에포크의 사회상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여 후속 연구에 대비하려고 한다. 단어 아파치의 출현 시점과 배경을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벨에포크 시대의 소설과 영화들이 아파치를 즐겨 다룬 이유를 밝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파치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규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논문은 필자가 진행하고 있는 ‘신문기사, 소설, 영화 분석에 의한 벨에포크 시대의 아파치 연구’의 첫 번째 단계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II. 황금투구 사건 개요

단어 아파치가 1902년 1월의 황금투구 사건을 계기로 태어났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주장이다. 멜리(Mélie)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아펠리 엘리

10) 이 단어가 1900년 7월 28일자 『르 마탱』과 『르 프티 주르날』에 출현했다는 것을 밝혀낸 도미니크 칼리파의 조사가 선행 연구 중에서 가장 ‘진전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결론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11) Kalifa, *L'encre*, p. 20.

12) gallica.bnf.fr/html/presentationPeriodiques.html.

는 이 사건의 와중에서 황금투구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¹³⁾. 당시 파리에서 20살 내외의 강패들은 두목 중심으로 패거리를 만들어 고유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관례였다. 벨빌의 라쿠르티유(La Courtille¹⁴⁾)를 무대로 활동하는 망다의 패거리는 오르토파(la bande des Orteaux¹⁵⁾)라고 자칭했다. 샤론 지구의 르카를 중심으로 한 패거리는 포팽파(la bande de Popinc¹⁶⁾)였다. 오르토파, 포팽파는 망다파, 르카파라고도 불렸다. 또 그들은 남녀 구분 없이 대개는 별명으로 불렸는데 이런 면에서 프랑수아 르카는 예외였다¹⁷⁾. 망다와 3년 반 동안 동거하던 멜리는 망다를 떠나 르카와 동거하게 된다¹⁸⁾. 이는 그들의 세계에서는 너무나 큰 모욕이었기 때문에 망다는 자기 패거리를 이끌고 1901년 12월과 1902년 1월에 몇 차례 르카를 습격하고 급기야 두 패거리 사이에 전면전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황금투구 사건이다. 이 사건의 연대기를 3개 일간지와 아멜리 엘리의 『황금투구 회고록』에 의거하여 작성해 보았다.

1901년 12월 20일: 멜리가 망다를 떠남
 1901년 12월 22일: 멜리가 르카를 처음 만남

- 13) 아멜리 엘리는 1902년 5월 30일 망다에 대한 재판에서 “황금투구라는 별명을 기자들이 붙였다”고 진술했지만, 『황금투구 회고록』에서는 1902년 1월 초 르카가 입원해 있던 트농병원의 간호사의 작품이라고 단언했다. 『르 프티 파리지앵』 1902년 5월 31일자. Amélie Elie, “Mémoires de Casque d’Or”, Quentin Deluermoz(ed.), *Chroniques du Paris Apache*(Mercure de France, 2008), pp. 34-36. 황금투구 사건은 자크 베케르 감독, 시몬 시노레 주연의 1952년 영화 <황금투구>에 의해 일종의 전설이 된다. 이때 배경으로 사용된 장소(샤론 지구)에 황금투구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 14) 라쿠르티유는 벨빌의 일부로서 선술집(guinguette)으로 유명했다. 싸구려 술과 춤을 즐길 수 있는 선술집은 오를레앙 공작 섭정기에 파리 성문밖에 생겨난 작은 술집을 가리킨다. 특히 1860년에 파리로 흡수된 코뮌들의 성문들(barrières)에는 선술집이 크게 번창하였는데, 벨빌의 라쿠르티유 성문 지역이 대표적이다. Fierro, *Paris*, pp. 918-920.
- 15) 오르토는 20구 샤론 지구에 있는 길 이름이다.
- 16) Popinc은 혁명기에 파리의 한 분구(section)였다가 1795년 12개 구, 48개 지구 체제로 재편되면서 8구의 한 지구가 된 Popincourt의 약칭이다. 이 지구는 1860년 1월 1일자로 11구(포팽쿠르)가 되어 오늘에 이른다. 11구는 20구와 인접해 있다. Fierro, *Paris*, pp. 1126-1129.
- 17) 망다의 본명은 조셉 플레뇌르(Joseph Pleigneur)이다.
- 18) 당시에 강패는 매춘부를 보호해주고 매춘부는 강패를 먹여 살리는데, 이것을 그들의 세계에서는 ‘결혼했다’고 한다. Amélie Elie, “Mémoires”, pp. 75-84.

1901년 12월 27일: 멜리와 르카 동거 시작
 1901년 12월 30일: 저녁 10시 경에 망다가 부하를 데리고, 멜리와 외출 중인 르카를 습격하여 단도로 머리를 찌르지만 경상에 그침. 경찰이 망다와 부하를 체포하지만 르카는 ‘법’에 따라 그들을 모른다고 진술
 1902년 1월 2일: 새벽에 망다가 부하와 함께 르카 집 창문을 향해 총격을 가해 유리창이 깨짐
 1902년 1월 5일: 밤에 망다파와 르카파의 전면전. 르카는 허벅지와 팔에 총상을 입음
 1902년 1월 6일: 저녁에 망다가 르카 집 앞에 와서 결투 요구. 르카는 부상을 이유로 거절
 1902년 1월 7-8일: 망다가 르카의 부하와 그 여자를 납치한 다음 멜리를 돌려주지 않으면 이들을 살해하겠다고 위협. 르카는 그들에게 손을 대면 복수할 것이며 멜리는 망다가 와서 뺏어가 보라고 통보. 망다는 르카의 부하와 여자를 풀어줌
 1902년 1월 8일: 르카는 부상이 악화되어 입원
 1902년 1월 9일: 아침에 르카는 수술을 통해 총알 제거. 샤론 파출소장이 르카를 방문하여 탐문. 르카는 부인으로 일관. 오후에 르카는 부하들과 멜리의 도움을 받아 퇴원. 르카 일행이 탄 마차를 망다파가 습격. 망다 부하가 르카를 단도로 찔러 가슴에 중상을 입힘. 경찰이 개입하여 르카를 병원으로 이송.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한 망다에게 20구의 ‘부랑자와 범죄자들’이 300프랑을 모금하여 도피자금으로 제공. 망다는 런던으로 도피했다가 언어문제와 향수 때문에 돌아와서 파리에 은신
 1902년 2월 2일: 경찰이 파리에서 망다 체포
 1902년 4월 16일: 망다의 친구들과 르카파가 충돌하여 부상자 발생. 르카는 브뤼셀로 도피
 1902년 4월 21일: 벨기에 경찰이 브뤼셀에서 르카 체포
 1902년 5월 31일: 센(Seine)중죄재판소가 망다에게 종신 강제노동형 선고
 1902년 10월 21일: 센중죄재판소가 르카에게 8년 강제노동형 선고

III. 3대 일간지의 ‘아파치’ 관련 기사

1. 『르 프티 파리지앵』

3대 일간지 중에서 황금투구 사건을 가장 먼저 보도한 것은 『르 프티 파리지앵¹⁹⁾』 1902년 1월 10일(금요일)자이다. ‘마차 안 살인’(Assassinés en Voiture)이라는 다분히 자극적인 제목을 내세운 이 기사가 1면에서 2면에 걸쳐 대서특필된 것 자체가 눈길을 끈다. 실제로 이 날짜 신문에서는 이 기사가 가장 크게 다루어졌다. 6면으로 발행되는 이 신문은 일반적인 파리의 사건사고는 3면의 파리 잡보(FAITS DIVERS Paris)에서 단신으로 다루지만²⁰⁾, 살인과 같은 큰 사건들은 1면에서 크게 취급한다. ‘마차 안 살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어제 저녁에 20구 샤론 지구에서 2명의 남자가 마차 안에서 습격을 당해 치명상을 입은 것은 범상치 않은 참극이다.
- 이 참극의 원인은 경찰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오리무중이다.
- 지난 월요일(6일) 새벽에 파리지앵 청소원이 샤론 지구의 한 도랑에서 총알구멍이 난 모자, 권총 2자루, 단도, 재크나이프, 도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 샤론 파출소장²¹⁾은 일요일 밤에 싸움이 벌어졌다고 확신하고 탐문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당번 경찰들이 특이 사항이 없었다고 보고하고 지구의 약국²²⁾들도 수상한 환자가 없었다고 했다.
- 파출소장은 어제 정오경에 사고로 다친 노동자를 면회하러 트농병원²³⁾

19) 1876년 10월 15일에 4면으로 창간된 이 신문은 1901년 10월 27일자부터 6면으로 증면되었다.

20) 3면 기사가 많을 때는 3-4면에 걸쳐서 다루거나 다른 면으로 옮겨지는 경우도 있다. 4면으로 발행될 때에는 2면이나 3면의 ‘파리’란에서 사건사고를 단신으로 처리했다.

21) 파출소(commisariat 또는 hôtel de police)는 지구에 하나씩 있고 그 책임자는 파출소장(commissaire de police)이다. Michel Aubouin, Arnaud Teyssier, Jean Tulard, *Histoire et dictionnaire de la police*(Robert Laffont, 2005), pp. 619-621.

22) 부상자가 발생하면 일단 가까운 약국으로 가서 응급조치를 한 다음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관례였다.

23) 1878년에 메닐몽탕병원이라는 이름으로 개원한 이 병원은 곧 트농병원으로 불리게 되

에 갔다가, 머리와 손에 총상을 입은 27살 프랑수아 르카가 월요일에 입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르카에게 일요일 밤에 싸움에서 부상을 당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으나 르카는 부인으로 일관했다.

- 오후에 르카는 간호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애인 알리스 D24와 두 친구 조르주 에릅스(25살), 장 도메르그(17살)의 도움을 얻어 마차를 불러 타고 퇴원한다.
- 마차 안에 르카와 알리스가 나란히 앉고 맞은 편에 에릅스와 도메르그는 보조의자에 앉았다. 마차가 병원을 나서자마자 근처에서 망을 보던 6명의 젊은이들이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 마차가 길을 바꾸는 순간 뒤따르던 한 명이 왼쪽 발판에 올라타서 열린 창문 사이로 단도를 휘둘러 르카와 에릅스를 찔렀다. 권총 두 자루로 무장한 도메르그가 즉각 습격자들에게 여러 발을 쏘았다. 습격자들은 서둘러 달아나버렸다. 오후 5시 경이다.
- 곧 경찰이 도착하여 꼼짝도 못하는 두 부상자를 약국으로 옮겼다. 르카는 가슴에 치명상을 입고 에릅스도 가슴을 크게 다쳐서 둘 다 피를 엄청 흘리는 바람에 마차 안이 흥건할 정도였다. 두 부상자는 트농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르카의 상태는 완전히 절망적이라서 밤을 넘기지 못할 것 같고, 에릅스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한다.
- 파출소장은 알리스 디와 도메르그를 조사했지만 범인에 대해 별다른 정보를 얻지 못했다. 다만 최근 르카와 그 친구들을 끝장내겠다고 맹세한 몇몇 사람들과 충돌이 있었다는 점은 알아냈다. 양측은 이미 두 번, 첫 번째는 10일 전에 두 번째는 월요일에 충돌했다고 한다.
- 이 충돌의 원인은 사랑싸움인(rivalité amoureuse)인 것 같다.
- 파출소장은 병원에서 르카가 경찰에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믿은 적들이 응징한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파출소장이 어제 밤에 아주 믿을만한

어 오늘에 이른다. 자크 트농(Tenon)은 18세기의 유명한 의사이다. 생파르조 지구에 위치한 트농병원은 20구를 대표하는 병원이다.

24) 남자들의 신원은 정확하게 알려진 반면, 아멜리 엘리의 본명은 이 신문의 경우는 2월 11일자에서야 밝혀진다. 이는 그녀가 등록 매춘부(les filles inscrites, les filles soumises)라서 경찰에게 가명을 돌려줬기 때문인 것 같다. 등록 매춘부는 파리경찰청 장부에 등록되어 있고 저녁 7-11시 사이에 영업을 할 수 있었다. 미등록 매춘부는 les filles insoumises, les filles clandestines. Quentin Deluermoz, *Chroniques*, pp. 229-231.

정보를 얻고 수사관들을 파견했으므로 곧 진상이 밝혀질 것이다.

이후 망다의 재판일까지 『르 프티 파리지앵』의 관련기사들을 몇 가지 기준에 따라 정리해 보았다. ①은 게재일이고 ②는 기사가 게재된 면이나 난인데, 당연히 1면이 제일 비중 있게 다룬 것이고 3면의 잡보는 단신 수준이다. 3면의 별도기사는 잡보의 단신보다는 훨씬 더 비중이 크다. ③은 기사제목인데, 비중이 큰 기사일수록 부제와 작은 제목들이 많다. 잡보의 단신은 제목이 하나뿐이다. ④에서는 황금투구 사건에 연루된 깡패들을 지칭하는 주요한 단어 나 표현을 소개하였다.

- 1) ①1월 11일자 ②1면 ③마차 안 살인
- 2) ①1월 12일자 ②1면 ③마차 안 살인 ④라쿠르티유파(«la bande de la Courtille»), 범죄자 조직(l'association de malfaiteurs)
- 3) ①1월 13일자 ②3면 파리 잡보 ③마차 안 살인 ④패거리 두목(le chef de bande)
- 4) ①1월 14일자 ②3면 파리 잡보 ③마차 안 살인
- 5) ①1월 17일자 ②3면 파리 잡보 ③마차 안 살인
- 6) ①1월 21일자 ②3면 파리 잡보 ③마차 안 피습(Poignardés)
- 7) ①1월 29일자 ②3면 별도기사 ③마차 안 피습 ④벨빌과 라벨레트의 불량자와 범죄자들(les rôdeurs et malfaiteurs de Belleville et de la Villette)
- 8) ①1월 31일자 ②3면 파리 잡보 ③마차 안 피습
- 9) ①2월 1일자 ②3면 파리 잡보 ③마차 안 피습
- 10) ①2월 3일자 ②3면 별도기사 ③마차 안 피습 -망다 체포 ④샤론파(la bande de Charonne), 깡패(le bandit)
- 11) ①2월 4일자 ②3면 파리 잡보 ③마차 안 피습
- 12) ①2월 9일자 ②3면 파리 잡보 ③마차 안 피습
- 13) ①2월 11일자 ②3면 파리 잡보 ③마차 안 피습
- 14) ①2월 14일자 ②3면 파리 잡보 ③또 망다
- 15) ①2월 21일자 ②3면 파리 잡보 ③마차 안 피습
- 16) ①4월 17일자 ②3면 별도기사 ③르카 다시 화제 ④라쿠르티유파와 오르토파의 일원들(les membres de la Courtille et des Orteaux), 거리

- 의 무뢰한들(ces d'Artagnans du trottoir), 푸장이들(ces ruffians)
- 17) ①4월 22일자 ②3면 최신뉴스(Dernière Heure²⁵) ③르카 브뤼셀에서 체포 ④아파치파 두목(le chef de la bande des «Apaches»)
 - 18) ①4월 23일자 ②1면 ③르카와 공범들 ④아파치파(la bande des «Apaches», la bande des Apaches), 아파치파 두목(le chef des «Apaches»), 르카 파(la bande de Leca)
 - 19) ①4월 24일자 ②1면 ③브뤼셀의 아파치 ④아파치들(Les «Apaches»)
 - 20) ①5월 31일자 ②3면 재판소식(LES TRIBUNAUX²⁶) ③망다와 그 패거리 ④망다와 그의 패거리(Manda et sa bande), 아파치들(les Apaches), 벨빌의 공포(la terreur de Belleville), 르카파(la bande Leca), 망다파(la bande Manda), 벨빌의 아파치(«les Apaches de Belleville»), 아파치파(«la bande des Apaches», la bande d'Apaches)
 - 21) ①6월 1일자 ②3면 재판소식 ③망다와 그 패거리

황금투구 사건이 흥미진진한 연재소설적 측면(여자를 쟁취하기 위해 살인을 불사하는 깡패들의 결투, 병원에서 퇴원하는 적들의 마차를 기습 등)이 강하지만, 사망자가 발생하지도 않은 사건을 22차례에 걸쳐 보도한 것은 선정적인 보도 또는 과장보도에 다름 아니며, 바로 이런 특성이 벨에포크 시대의 언론상과 사회상을 잘 드러낸다고 도미니크 칼리파는 해석한다. 황금투구 사건은 불량자 또는 깡패의 범죄와 치정살인이 겹친 완벽한 ‘특종 감 범 죄’(beaux crimes)이기 때문이다²⁷. 어쨌든 단어 아파치는 르카의 체포를 보도한 『르 프티 파리지앵』 1902년 4월 22일자에 처음 출현한다. 그 전에는 불량자(rôdeur), 범죄자(malfaiteur), 패거리(bande), 깡패(bandit)처럼 일반적인 단어들만을 사용하였다. 또 Apaches를 둘러싼 기호(« »)는 이 단어가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르 프티 파리지앵』은

25) 국내의 최신뉴스를 보도하는 고정란으로 3면 왼쪽에 배치된다. 이 난에는 같은 면의 파리잡보보다 비중이 큰 국내의 기사들이 실린다.

26) 재판소식은 3면에 배치되는데, 최신뉴스나 파리잡보와는 달리 매일 게재되지는 않는다. 5월 31일자에서는 망다의 재판기사가 워낙 크게 다루어지는 바람에 파리잡보는 4면으로 밀려났다.

27) Kalifa, *L'encre*, pp. 19-23, 66-71. 칼리파에 따르면, 불량자의 범죄와 치정살인이 도시와 교외의 점증하는 치안 불안을 고발하는 호재가 된 것은 20세기 초부터라고 한다.

«Apaches»와 Apaches를 혼용하고 있는데, 이는 적어도 1902년 6월 1일까지는 이 신문이 단어 아파치를 정식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어진다. 이 신문이 단어 아파치에 대해 저항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은, 망다의 재판을 상세하게 보도한 5월 31일자 기사에서 잘 드러난다.

센중죄재판소에서 르카의 경쟁자이며 황금투구의 연인인 망다와 그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들에게는 아파치라는 별명이 붙어 있다. 그들의 무훈을 떠벌이는 사람들은 자기 공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완전 소설을 쓰고 있다. 망다와 그 부하들은 변두리 지구들의 부랑자들이 매일 밤 하고 다니는 짓을 한 것뿐이다.

(…)

신문에서 하도 아파치와 황금투구 이야기를 많이들 떠들어서 이 별 볼일 없을 것 같은 재판을 구경하러 법정에 수많은 호사꾼들이 몰려들었다²⁸⁾.

실제로 ‘브뤼셀의 아파치(Le «Apaches» à Bruxelles)’라는 제목을 내세운 4월 24일자 기사 본문에는 정작 아파치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르 프티 파리지앵』 5월 31일자 기사는 이 단어의 기원에 대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증인으로 출두한 의사는 이 패거리 한 일원의 몸에 ‘벨빌의 아파치’라는 단어가 새겨진 문신이 있다고 말했다. 그들에게 붙여진 ‘아파치파’라는 명칭은 여기서 나온 것이다²⁹⁾.

‘벨빌의 아파치’라는 표현이 황금투구 사건 이전부터 강패들 사이에서 쓰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듯한 이 단서에 대한 논의는 조금 뒤로 미루겠다.

2. 『르 프티 주르날』

상당수 문헌이 아파치 단어의 발원지라고 지목한 『르 프티 주르날』의 관련 기사들은 예상 외로 몇 개 되지 않는다. 1902년 1월 6일자부터 4면에서 6면으로 증면된 이 신문³⁰⁾은 1월 29일야 황금투구 사건을 처음으로 보도하고

28) 『르 프티 파리지앵』 1902년 5월 31일자 3면.

29) 『르 프티 파리지앵』 1902년 5월 31일자 3면.

30) 이 신문은 1863년 1월 31일에 견본호(numéro spécimen)를 낸 다음 2월 1일자로 창간호를 발간했다.

그 내용도 이미 알려진 것을 정리한 수준에 불과하다. 이 신문은 대개 2면 ‘파리소식(A TRAVERS PARIS)’에서 사건사고를 단신으로 처리한다. 이 신문의 황금투구 관련 기사들을 『르 프티 파리지앵』과 동일한 기준에 의거하여 정리해 보았다.

- 1) ①1월 29일자 ②4면 별도기사 ③샤론의 강패들 ④샤론의 강패들(les bandits de Charonne), 두 패거리(deux bandes)
- 2) ①1월 31일자 ②2면 파리소식 ③샤론의 강패들 ④샤론의 강패들(les bandits de Charonne), 범죄자(le malfaiteur), 패거리 두목(le chef de la bande)
- 3) ①2월 3일자 ②3면 최신뉴스(DERNIERES NOUVELLES³¹⁾) ③망다 체포 ④아파치의 풍모(l'attitude d'Apache), 샤론의 강패 두목(le chef des bandits de Charonne)
- 4) ①2월 9일자 ②4면 별도기사 ③황금투구 체포
- 5) ①2월 22일자 ②2면 파리 소식 ③샤론의 강패들 ④망다와 그 패거리(Manda et sa bande)
- 6) ①2월 28일자 ②2면 파리 소식 ③르카파와 망다파 ④르카파와 망다파(les bandes Leca et Mandat)
- 7) ①4월 17일자 ②3면 별도기사 ③르카 재출현 ④살인강도범(les escarpes), 르카파(la bande Lecca), 망다파(les Manda), 망다와 그 패거리(Manda et sa bande)
- 8) ①4월 22일자 ②3면 최신뉴스 ③르카 체포 ④아파치파 두목(le chef de la bande des Apaches), 아파치파(la bande des «Apaches»)
- 9) ①4월 23일자 ②3면 최신뉴스 ③아파치파 ④아파치파(la bande des «Apaches»)
- 10) ①5월 31일자 ②4면 재판소식³²⁾ ③아파치 ④아파치들(les Apaches, les «Apaches»), 아파치(un Apache)
- 11) ①6월 1일자 ②4면 재판소식 ③아파치 ④아파치들(les Apaches)

31) 국내의 최신뉴스를 보도하는 고정란으로 항상 3면 왼쪽에 배치된다.

32) 재판소식은 대부분 4면에 실린다. 이 기사에는 망다, 르카, 황금투구의 상반신 삽화가 들어있다.

『르 프티 주르날』은 『르 프티 파리지앵』에 비해 황금투구 사건을 훨씬 더 소극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르 프티 주르날』은 단 한 번도 이 사건을 1면에서 다루지 않았다. 하지만 망다의 체포를 보도한 이 신문 2월 3일자는 단어 아파치의 기원에 대해 흥미로운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본보가 그 무훈을 보도한 악명 높은 파리 깡패 망다가, 아주 평범한 방식으로 그리고 저속한 소설의 저속한 주인공인 이 한심한 인물에게 부여된 아파치의 풍모(l'attitude d'Apache)와는 거의 무관한 방식으로 체포되었다³³⁾.

이때만 하더라도 『르 프티 주르날』은 황금투구 사건을 ‘샤론의 깡패들’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고 위 기사에서도 망다를 ‘샤론의 깡패 두목’이라고 불렀지만³⁴⁾, 경찰이나 기자들이 이미 아파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과연 『르 프티 주르날』 1월 31일자 4면의 한 별도기사는 제목이 ‘벨빌의 아파치(LES APACHES DE BELLEVILLE)’이다. “20구 일부를 정기적으로 갈취하고 그 일원들이 왼손에 새긴 별 문신으로 구별되는 저 악명 높은 패거리, 벨빌의 아파치가 빈집털이를 시도하다가 체포되었다”고 보도한 이 기사는 단어 Apaches를 아무런 기호 없이 사용하고 있다. ‘왼손에 별 문신을 새긴 벨빌의 아파치’가 황금투구 사건 이전에 보도된 적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망다파의 한 일원의 몸에 ‘벨빌의 아파치’라고 새긴 문신이 있다는 『르 프티 파리지앵』의 보도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또 『르 프티 주르날』 5월 31일자의 아파치 재판 기사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었다고 소개한다.

한 배심원이 의사에게 아파치가 몸에 문신을 하고 있다고 질문하자 의사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오른손에 별 문신이 있는 망다의 부하가 자기는 열 살 때부터 있었다고 하면서, “아까 본 경찰도 손에 별 문신이 있는데 그럼 그도 아파치냐”고 반문하여 법정에서 폭소가 터져 나왔다³⁵⁾.

『르 프티 주르날』도 『르 프티 파리지앵』과 마찬가지로 4월 22일자부터 단어 아파치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이 단어가 황금투구 사건 이

33) 『르 프티 주르날』 1902년 2월 3일자 3면.

34) 망다는 벨빌 라쿠르티유를 무대로 암약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오보이다. 당시 신문의 사건사고 기사 오보에 대해서는 Kalifa, *L'encre*, pp. 90-91.

35) 『르 프티 주르날』 1902년 5월 31일자 4면.

전에 사용된 적이 있다는 점은 더욱 분명해졌다.

3. 『르 마탱』

황금투구 사건에 대한 『르 마탱』의 첫 번째 기사는 『르 프티 파리지앵』의 첫 번째 기사보다 하루 더 늦고 비중도 작다. 하지만 곧 이 신문은 가장 적극적이고 상세한 보도에 나서게 된다. 또 과장은 물론이고 왜곡도 서슴지 않는다. 필자가 검색한 3개 신문 중에서 가장 먼저 1899년 5월 25일자부터 4면에서 6면으로 증면된 『르 마탱』이 1884년 2월 26일자 창간호에서 프랑스의 ‘MORNING NEWS’를 표방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뉴스와 정보전달 중심이던 영미 신문과는 달리 문학과 정치의 틀 속에서 발전해 나가던 프랑스 신문이 1880년과 1914년 사이의 대중 일간지들의 편집방향에 의해 예전과 달리 사실적인 정보 저널리즘을 추구하기 시작³⁶⁾”했는데 바로 그 선두주자가 『르 마탱』이라고 필자는 본다. 대개 4면에 배치되는 파리소식(A TRAVERS PARIS)에서 사건사고를 단신으로 보도하는 이 신문의 황금투구 사건 관련 기사들을 앞과 동일한 기준에 의거하여 정리해 보자.

- 1) ①1월 11일자 ②2면 별도기사 ③복수극(UNE VENDETTA) ④벨빌의 건달들(les «Gars de Belleville»), 범죄자 패거리(la bande de malfaiteurs)
- 2) ①1월 12일자 ②4면 파리소식 ③복수극 ④ 소위 라쿠르티유파(une bande dite «de la Courtille»), 라쿠르티유파(la bande de la Courtille)
- 3) ①1월 13일자 ②4면 파리소식 ③복수극
- 4) ①1월 14일자 ②4면 파리소식 ③샤론의 복수극 ④라쿠르티유파(la «Bande de la Courtille»)
- 5) ①1월 17일자 ②2면 파리소식 ③샤론의 복수극
- 6) ①1월 18일자 ②4면 파리소식 ③샤론파 ④샤론파(la bande de Charonne), 라쿠르티유파(la bande de la Courtille)
- 7) ①1월 21일자 ②2면 별도기사 ③샤론의 복수극 ④라쿠르티유파(la bande de la Courtille), 샤론파(la bande de Charonne), 망다파(la bande de Manda)

36) 임종권, 「현대 프랑스 저널리즘의 기원과 특징」, 『프랑스사연구』, 19집(2008. 8), 133-144쪽.

- 8) ①1월 28일자 ②1면 ③파리의 강패들 ④파리의 강패들(les bandits de Paris), 라쿠르티유파(la bande de la Courtille)
- 9) ①1월 29일자 ②1면 ③파리의 강패들 ④파리의 강패들(les bandits de Paris), 샤론파(la bande de Charonne), 망다와 그 패거리(Manda et sa bande), 부랑자들(les rôdeurs), 라쿠르티유파(la bande de la Courtille)
- 10) ①1월 31일자 ②4면 파리소식 ③샤론의 복수극 ④망다파(la bande à Manda)
- 11) ①2월 1일자 ②4면 파리소식 ③샤론의 복수극 ④망다파(la bande à Manda)
- 12) ①2월 3일자 ②1면 ③강패 체포 ④라쿠르티유파(la bande de la Courtille), 샤론파(la bande de Charonne), 범죄자 패거리(une bande de malfaiteurs), 벨빌의 아파치(«les Apaches de Belleville»)
- 13) ①2월 4일자 ②4면 파리소식 ③페너르, 일명 망다의 예심 ④샤론파(la bande de Charonne)
- 14) ①2월 9일자 ②1면 ③구치소의 황금투구 ④라쿠르티유파(la bande de la Courtille)
- 15) ①2월 11일자 ②4면 별도기사 ③아파치 ④아파치들(les «Apaches»)
- 16) ①2월 13일자 ②1면 ③아파치 ④아파치들(les «Apaches»), 아파치 두목(le chef des «Apaches»)
- 17) ①2월 14일자 ②1면 ③또 망다
- 18) ①2월 16일자 ②2면 ③황금투구의 집 ④샤론파(la bande de Charonne), 아파치들(les «Apaches»)
- 19) ①2월 18일자 ②4면 파리소식 ③망다에 대한 공포 ④아파치 두목(le chef des Apaches)
- 20) ①2월 20일자 ②1면 ③망다의 청년기 ④아파치 두목(le chef des «Apaches», le chef des Apaches)
- 21) ①2월 24일자 ②4면 파리소식 ③황금투구가 청동투구를 미치게 만든다 ④아파치 두목(le chef des Apaches)
- 22) ①3월 6일자 ②1면 ③예술가 황금투구 ④아파치들(les «Apaches»)
- 23) ①3월 12일자 ②1면 ③망다와 황금투구 ④아파치 두목(le chef des Apaches, le chef des «Apaches»), 아파치들의 헬레네(Hélène des Apaches),

- 아파치들의 포로(le prisonnier des Apaches)
- 24) ①3월 20일자 ②2면 파리소식 ③황금투구
 - 25) ①4월 17일자 ②2면 파리소식 ③또 아파치들 ④아파치들(les Apaches), 르카파(la bande de Lecca³⁷⁾), 망다파(la bande à Manda)
 - 26) ①4월 18일자 ②4면 파리소식 ③파리의 강패들 ④르카파(la bande à Lecca)
 - 27) ①4월 22일자 ②2면 별도기사 ③아파치의 여행 ④아파치들(Les Apaches), 아파치 두목(le chef des Apaches, le chef des «Apaches»)
 - 28) ①4월 23일자 ②2면 별도기사 ③르카, 에릅스와 그 일당 ④아파치들(les Apaches), 아파치파(la bande des Apaches)
 - 29) ①5월 20일자 ②4면 파리소식 ③«황금투구» 체포
 - 30) ①5월 31일자 ②4면 별도기사 ③중죄재판소의 아파치 ④아파치들(les Apaches), 아파치들의 헬레네(Hélène des Apaches)
 - 31) ①6월 1일자 ②4면 별도기사 ③중죄재판소의 아파치 ④아파치들(les Apaches)

『르 마탱』은 1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황금투구 사건을 무려 31번이나 다루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라쿠르티유파(la bande de la Courtille), 샤론파(la bande de Charonne), 망다파(la bande de Manda, la bande à Manda), 르카파(la bande de Leca, la bande à Leca), 파리의 강패들(les bandits de Paris) 등에서 『르 마탱』이 망다와 르카의 패거리들을 지칭하는 말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1월 28일자와 1월 29일자 기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별다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연이어 1면에 ‘파리의 강패들’이라는 거창한 제목의 기사를 내세워서 황금투구 사건을 다루었기 때문이다. 1월 28일자 기사는 병원에 입원 중인 르카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으며 망다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고 있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1월 29일자는 르카가 경찰의 엄중한 경호 속에 퇴원 하였고 황금투구가 르카와의 결혼 계획을 기자에게 털어놓았으며, 벨빌을 비롯한 몇몇 지구의 부랑자들이 망다에게 도피자금으로 300프랑³⁸⁾을 모금해주

37) 『르 마탱』은 상당히 오랫동안 Lecca를 고수하다가 4월 22일자부터 Leca로 표기한다.
38) 1906년에 일반 경찰의 연봉이 1900-2300프랑이었으므로 300프랑은 상당한 거금이다.
Deluermoz, *Chroniques*, p. 234.

었다고 보도했다. 말 그대로 잡보에서나 단신으로 처리할 내용을 1면에서 크게 다룬 것도 그렇지만, ‘파리의 깡패들’은 사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제목이다. 망다와 르카는 희대의 살인마도 파리를 대표하는 깡패도 아니고 동네깡패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과장은 황금투구의 체포를 보도한 2월 9일자 1면 기사, 망다가 절도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2월 14일자 1면 기사, 『르 마탱』 기자가 황금투구의 집을 방문한 이야기를 보도한 2월 16일자 2면 기사, 망다의 청년기를 소개한 2월 20일자 1면 기사, 황금투구가 곧 연극무대에 데뷔³⁹⁾ 한다는 3월 6일자 1면 기사, 황금투구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는 3월 12일자 1면 기사 등에서 계속 확인된다. 『르 프티 파리지앵』과 『르 프티 주르날』은 단신으로 처리하거나 아예 보도하지도 않은 내용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1면에 대서특필한 것이다. 단어 아파치가 처음으로 출현한 2월 3일자 1면 기사는 과장이 아니라 분명한 왜곡이고 날조이다.

망다가 두목이 되자 그 부하들은 ‘벨빌의 아파치’라고 자칭하며 이 이름으로 수많은 살인을 자행함으로써 여러 달 동안 20구의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⁴⁰⁾.

망다의 패거리가 ‘벨빌의 아파치’라고 자칭하고 살인을 저질렀다는 이야기는, 『르 프티 파리지앵』의 지적처럼, 완전한 소설이다. 하기가 황금투구는 5월 30일의 재판에서 “아파치파라는 것은 없다⁴¹⁾”고 단언한 바 있다.

이 (치열한) 뉴스경쟁에서 기자⁴²⁾에게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신속보도였으므로 당연히 검증이 불가능했다. 과장, 왜곡 또는 완전한 날조가 일상적이었다⁴³⁾.

실제로 『르 마탱』의 후속기사들에는 살인과 명칭에 대한 언급이 전무하다. 단어 아파치만 아무런 근거 없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할 뿐이다. 2월 11일자 4면의 별도기사는 «LES APACHES»라는 제목을 사용하고⁴⁴⁾, 드디

39) 황금투구의 상품성을 간파한 극장주가 그녀를 데뷔시키려고 했으나 경찰과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고 만다.

40) 『르 마탱』 1902년 2월 3일자 1면.

41) 『르 프티 파리지앵』 1902년 5월 31일자 3면.

42) 임종권의 논문은 저널리스트와 리포터를 구분하고 있지만, 편의상 필자는 리포터도 기자로 간주한다. 임종권, 『프랑스 저널리즘』, 134-137쪽.

43) Kalifa, *L'encre*, p. 90.

44) 거창한 제목과는 달리 기사는 양도 작고 별다른 내용도 없다. 며칠 전에 체포된 황금

어 2월 13일자는 1면에 동일한 제목을 내세운 다음 본문에서 망다를 아파치 두목(le chef des «Apaches»)이라고 부른다⁴⁵⁾. 이후 거의 모든 관련 기사에는 이 단어가 나오고 곧 아무런 기호 없이 사용된다. 이런 관점에서 2월 19일자 4면은 정말 의문의 대상이다. 매주 수요일에 4면에 실리는 대형 풍자화⁴⁶⁾가 “카요파 아파치(«les Apaches de la bande à Caillaux»)로 보이는 강도들이 그랑팔레에 침입”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카요파가 누군지 왜 그들을 아파치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언급이 없다. 단어 아파치가 황금투구 사건과 무관하게 ‘대담한 강도’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 것만은 분명하다. 벨빌이 아니라 샤론에서 암약하던 르카와 그 패거리도 4월 17일자에서부터는 아파치로 불리게 되며, 브뤼셀에서 체포된 르카는 망다와 마찬가지로 아파치 두목으로 불린다⁴⁷⁾. 4월 23일자에는 아파치파(la bande des Apaches)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한다. 4월 30일자부터는 다른 지역의 깡패들도 아파치라고 부르기 시작한다.

- ①4월 30일자 ②4면 파리소식 ③교외의 아파치들 ④교외의 아파치(les Apaches de la banlieue)
- ①5월 2일자 ②4면 파리소식 ③교외의 아파치 ④교외의 아파치
- ①5월 4일자 ②2면 파리소식 ③교외의 아파치 ④교외의 아파치

이 기사들은 벨빌과는 정반대쪽인 파리 서쪽 교외의 뤼토(Puteaux)에서 일어난 노상 살인강도사건을 보도하면서 밀도 끝도 없이 범인들⁴⁸⁾을 아파치라고 부른다. 또 5월 8일자는 벨빌에서 un «Apache»를 두고 벌어진 두 여인 사이의 결투를 보도하고 있는데, 왜 문제의 남자를 아파치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투구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는 단신이다. 아파치라는 단어도 기사에는 없다.

45) 망다에 대한 첫 번째 예심을 보도한 기사이다. 또 이 기사는 황금투구를 ‘(트로이의) 헬레나’라고 부르고 3월 12일자 기사는 ‘아파치들의 헬레나’라는 표현을 선보인다.

46) 이날 풍자화의 제목은 ‘대담한 시도’이다. 당시 그랑팔레에는 프랑스미술가협회가 입주해 있었는데, 이 협회 간사들의 용기에 놀란 강도들이 도주했다는 내용이다. 당대의 유명 풍자화가인 알베르 기욤(Albert Guillaume)이 1900년 4월 4일부터 매주 수요일 『르 마탱』에 연재하기 시작한 풍자화들은 흥미 있는 연구대상인 것 같다.

47) 『르 마탱』 1902년 4월 22일자 2면.

48) 20살 안팎인 이들은 모두 체포된다.

- ①5월 8일자 ②2면 파리소식 ③아파치의 아름다운 눈을 위해 ④1'«Apache», un «Apache»

5월 17일자는 11구에서 일어난 노상강도 사건을 보도하면서 강도들이 “아파치를 기억하라”는 말을 남겼다고 썼다. 『르 마탱』의 왜곡과 날조를 서슴치 않을 정도로 전폭적인 지원 덕에 단어 아파치가 말하자면 인기어로 올라선 셈이다.

- ①5월 17일자 ②4면 파리소식 ③아파치들의 새로운 무훈 ④les Apaches

3대 일간지의 황금투구 사건 관련 기사들 검색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점들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단어 아파치는 이 사건 이전에 사용된 적이 있다. 특히 벨빌의 아파치라는 표현은 기자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다.
- 이 단어는 『르 마탱』의 황금투구 사건 관련 기사들의 선정적인 과장 보도에 힘입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차츰 뿌리를 내린다.

IV. 단어 아파치의 최초 출현시점

그렇다면 단어 아파치의 최초 출현시점은 언제일까? 이 문제를 밝혀내기 위해 1902년 1월부터 1900년 1월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르 마탱』, 『르 프티 파리지앵』, 『르 프티 주르날』을 조사한 필자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어냈다.

- 1) 『르 마탱』 1901년 7월 11일자 2면 파리소식

‘아파치 두목 체포(Arrestation du chef des Apaches)’라는 제목의 단신이, “몇 달 동안 벨빌 지구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패거리가 일제단속에서 체포되었는데 그들 중 하나는 가슴에 아파치 두목(Chef des Apaches)이라고 새긴 문신이 있다”고 보도.

- 2) 『르 프티 파리지앵』 1901년 7월 11일자 3면 파리소식⁴⁹⁾

‘아파치파(La Bande des Apaches)’라는 제목의 단신이 “벨빌 지구 등에서 암약하던 아파치파의 두목과 일당이 체포되었는데 두목은 가슴에 아파치 두목(Chef des Apaches)이라고 새긴 문신이 있다”고 보도.

- 3) 『르 마탱』 1901년 1월 13일자 4면 파리소식

‘아파치 한 명 체포(Arrestation d'un «Apache»)’라는 제목의 단신이 “여러 달 동안 벨빌 지구 전체를 공포에 몰아넣은 악명 높은 «Apaches»파의 일원이 체포되었다”고 보도.

- 4) 『르 마탱』 1900년 12월 12일자 1면

앙리 푸키에(Henry Fouquier)가 아파치들(LES “APACHES”)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미국 아파치족만큼 잔인한 파리 메닐몽탕 지역의 아파치들이 토막살인 등의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고 질타⁵⁰⁾. 본문에서는 Apaches를 아무런 기호 없이 사용.

- 5) 『르 마탱』 1900년 12월 12일자 3면 파리소식

‘피아로(la rue Piat)의 이중 범죄’라는 제목의 단신에서, 12월 10일 새벽에 벨빌 피아로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의 범인들은 ‘벨빌의 아파치파(la bande des «Apaches de Belleville»)가 분명한데 약 6개월 전부터 벨빌, 메닐몽탕, 샤론 지구를 공포로 떨게 하는 이들의 무훈을 제일 먼저 보도한 바 있다고 강조⁵¹⁾.

49) 이 신문은 4면으로 발행될 때는 3면의 파리소식(PARIS) 난에서 사건사고를 단신으로 보도했다.

50) 1면의 거의 1/3을 차지하는 이 칼럼은 아파치 같은 ‘범죄의 군대’의 준동이 초등학교 의무교육과 민주주의의 부산물이라는 주장을 개진하고 있는데, 이런 논조는 『르 마탱』이 일차대전 이후에 민족주의를 지향하면서 반의회주의를 표방하고 독일 강점기에는 친나치 신문이 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 논문에서 이 칼럼을 자세히 분석해 보려고 한다. [http://fr.wikipedia.org/wiki/Le_Matin_\(France\)](http://fr.wikipedia.org/wiki/Le_Matin_(France)).

51) 유감스럽게도 국립프랑스도서관의 사이트에는 『르 마탱』 1900년 12월 11일자가 빠져 있다. 하지만 피아로의 살인사건은 12월 11일자 1면에 대서특필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6) 『르 프티 파리지앵』 1900년 12월 11일자 1면
‘벨빌에서의 이중 살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피아로에서 벌어진 참혹한 살인사건을 상세하게 보도하고⁵²⁾ 경찰이 아파치 조직(une association des «Apaches»)의 일원들을 뒤쫓고 있는데, 그들의 무훈을 보도한 바 있다고 지적.

7) 『르 마탱』 1900년 8월 31일자 4면 파리소식
‘아파치파(La bande des Apaches)’라는 제목의 단신에서, “얼마 전부터 잠잠하던 악명 높은 아파치파가 어제 저녁 벨빌 랑포노로(la rue de Ramponeau)에서 마부를 습격하고 경찰에게 맞서다가 그 중 한 명이 체포되었는데 그는 아파치파에 속한다고 자랑했다”고 보도.

8) 『르 마탱』 1900년 8월 2일자 4면 파리소식
아파치 두목 체포(Arrestation du chef des «Apaches»)라는 제목의 단신에서 “벨빌 주민이 악명 높은 아파치파(la bande des «Apaches») 두목의 체포 소식에 크게 만족할 것”이라며 “어제 밤에 벨빌의 한 술집을 턴 일당 중 한 명이 체포되었는데 그는 자기가 아파치 두목이라고 말한 다음 목비권을 행사했다”고 보도.

9) 『르 마탱』 1900년 7월 28일자 4면 파리소식
‘또 아파치(Encore les Apaches)’라는 제목의 단신에서 “본보는 벨빌과 라 빌레트에서 아파치(«Apaches»)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범죄자 패거리가 저지른 대담한 습격들을 보도한 적이 있다”면서 만국박람회를 구경하러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이 어제 밤에 벨빌의 아파치라고 자칭하는 일당에게 800프랑과 금시계를 강탈당한 사건을 보도.

10) 『르 프티 파리지앵』 1900년 7월 28일자 3면 파리소식
아파치파(la bande des Apaches)라는 제목의 단신에서 어제 밤 사건을

52) 10일 새벽 3시 경에 피아로에서 4명의 강패와 2명의 행인 사이에 시비가 붙어 행인 한 사람은 살해되고 다른 하나는 중상을 입었다. 강패에게 단도로 목을 찢린 행인은 곧 사망했고(『르 프티 파리지앵』의 표현을 빌자면, 도살장에서 짐승 먹이 목을 잘라서 경동맥이 단번에 끊어졌다고 한다) 이 살인자는 다른 행인의 배를 찢러 중상을 입혔다. 범인은 경찰이 출동하자 총격을 가하고 도망쳤다.

보도하면서 범인들이 소위 아파치파(«la Bande des Apaches»)라는 범죄자 패거리에 속해 있다고 지적.

11) 『르 마탱』 1900년 6월 30일자 4면 파리소식
‘벨빌의 야만인들’이라는 제목의 이 단신은 상당히 긴데 단어 아파치가 최초로 출현한 기사라고 믿어진다.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사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 얼마 전부터 살인강도범(les escarpes)들의 세계에서는 아파치(«Apaches»)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부랑자들이 외곽 대로(les boulevards)들, 주로 벨빌 대로를 밤에 정기적으로 갈취하며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 이들 중 여럿은 이미 체포되었지만 상당수는 여전히 암약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단순히 재미로 악행을 저지른다. 6월 28일 밤에는 벨빌 대로에서 한 노동자가 그들의 습격을 받았다.
- 곤봉과 단도로 무장한 4명이 그 노동자를 어두운 길로 끌고 가 진짜 아파치족이라도 엄두를 내지 못할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렀다. 강패들이 구타하고 강제로 화주를 먹이는 바람에 정신을 잃은 그를 다음 날 출근하는 노동자들이 발견했을 때, 그는 피투성이가 된 채 얼굴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었다. 오른쪽 눈알은 눈에서 빠져나와 뺨 위에 놓여져 있고, 코도 칼에 찢려 구멍이 났으며 왼쪽 뺨으로 들어간 단도의 칼날이 입으로 빠져 나와 있었다⁵³⁾.
- 그 칼날 끝에 매달려 있는 피로 흠뻑 젖은 쪽지에는 연필로 아파치(«Les Apaches»)라고 적혀 있었다.
- 절망적인 상태의 피해자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벨빌 파출소장이 수사에 착수했다.

1900년 6월 말 이전부터 파리 동부의 벨빌을 중심으로 한 뒷골목 사회에서는 아파치라고 자칭하는 강패들이 암약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이들의 범행을 최초로 보도한 것이,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르 마탱』 1900년 6월 30일자 기사다. 하지만 이 엽기적인 사건의 범인들을 체포했다는 기사는 없다.

53) 범죄를 사실주의 또는 자연주의 소설가들처럼 상세하게 재구성하는 것이 당시 사건사고 기사들의 관행이었다. Kalifa, *L'encre*, pp. 54-55.

당시의 많은 사건들처럼 미제 사건이 된 것이다. 그 대신 이유 없이 무자비한 범행을 저지르는 ‘벨빌의 아파치’가 공포의 대상으로 떠오른다. 7월 27일 밤의 강도사건은 6월 28일 사건과 무관한 것이 확실하지만, 강도들이 ‘벨빌의 아파치’를 자처하는 바람에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어 『르 마탱』만이 아니라 『르 프티 파리지앵』까지 보도하게 된다. 8월 1일의 술집털이들과 8월 30일의 강패들이 6월 28일과 7월 27일 사건의 범인이라는 보도는 전무하다. 실제로 8월 30일의 마부피습 사건을 보도한 『르 프티 파리지앵』 1902년 8월 31일자 3면 파리소식의 단신에는 아파치란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르 프티 주르날』은 이런 사건들을 보도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건들이 모두 벨빌 지구에서 발생하고 범인들이 아파치 또는 아파치파를 자처했기 때문에, ‘벨빌의 아파치’가 더욱 유명해진 것이다.

‘벨빌의 아파치’가 잊혀져갈 무렵에 터진 것이 12월 10일 새벽 벨빌 피아로의 살인 사건이다. 『르 마탱』은 12월 11일자와 12일자에서 그리고 『르 프티 파리지앵』은 12월 11일자에서 대대적인 보도에 의해 아파치의 소행이라고 단정했지만, 그 이후의 모든 후속보도들에서는 아파치라는 단어가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린다. 『르 프티 주르날』은 12월 11일자에서 2-3면에 걸친 별도 기사로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었지만, 단어 아파치는 나오지 않는다⁵⁴. 이런 관점에서 『르 마탱』 12월 12일자 1면 ‘아파치’라는 제목의 칼럼은 과장, 왜곡, 날조의 압권인 동시에 흥미 있는 연구대상이다. 어쨌든 피아로 사건은 평범한 살인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도 『르 마탱』 등이 호들갑을 떨 이유는, 며칠 전인 12월 4일 저녁에 다름 아닌 20구 페르라세즈 지구에서 토막 난 시체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1900년 12월 내내 3대 일간지가 경쟁적으로 게재한 토막시체 관련 기사에는 아파치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그 대신 20구 벨빌 피아로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벨빌의 아파치’를 보도한 적이 있는 『르 마탱』과 『르 프티 파리지앵』이 아파치를 연루시킨 것이다. 이 여파로 『르 마탱』 1901년 1월 13일자 4면 파리소식, 『르 마탱』 1901년 7월 11일자 2면 파리소식, 『르 프티 파리지앵』 1901년 7월 11일자 3면 파리소식에 단어 아파치가 등장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과거를 지닌 단어 아파치는 1901년 7월 11일 이후에는 3대 일간지에서 자취를 감추었다가

54) 3개 신문에서 1902년 3월 13일까지 계속된 피아로 사건 보도는 모두 단신으로 취급되었다. 주범으로 체포된 사람이 살인죄로 중죄재판소에 기소되었다는 『르 마탱』과 『르 프티 주르날』의 3월 13일자 보도 이후에는 더 이상 아무런 소식이 없다.

황금투구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V. 맺는말

1900년 1월 1일자부터 1902년 6월 1일자까지 『르 마탱』, 『르 프티 파리지앵』, 『르 프티 주르날』을 조사한 필자의 연구는 단어 아파치의 최초 출현 일자(『르 마탱』 1900년 6월 30일자 4면)를 밝혀냈다고 본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 단어가 1900년 7월 28일자 『르 마탱』과 『르 프티 파리지앵』에 처음 출현했다는 것을 밝혀낸 도미니크 칼리파의 조사가 지금까지 나온 가장 ‘진전된’ 성과이기 때문이다⁵⁵. 또 1900년 6월 30일부터 1901년 7월 11일까지 총 12번⁵⁶의 신문기사가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점도 밝혀냈고, 칼리파의 저작에서 잘못된 점들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⁵⁷. 특히 『르 마탱』 1900년 6월 30일자 기사는 파리 변두리 벨빌의 이름 없는 몇몇 강패들이 (분명 장난삼아) 아파치라고 자칭했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이 단어의 최초 사용자에게 대한 논란을 종식시켜 버린다.

이 단어의 직접적인 최초 사용자에게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르 마탱』의 빅토르 모리스와 같은 기자들 또는 (...) 경찰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사람들은 이 단어가 파리 동부의 부랑자들 세계에서 자생적으로 나왔다고 주장한다.⁵⁸

칼리파가 이렇게 망설인 것은 1900년 7월 28일자 『르 마탱』과 『르 프티 파리지앵』 기사밖에 참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기사들에서는 단어 아파치의 최초 사용자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본보는 벨빌과 라벨레트에서 ‘아파치’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범죄자 페거리가

55) Kalifa, *L'encre*, pp. 153, 321.

56) 사이트에 없는 이유로 필자가 참조하지 못한 1900년 12월 11일자 『르 마탱』 포함.

57) Kalifa, *L'encre*, pp. 153-154, 321. 칼리파는 『르 마탱』이 1902년 6월에 튀도에서의 아파치 출현을 보도했다고 했지만, 위에서 보다시피 1902년 4월 30일자에서부터 이 사건이 보도되었다. 또 벨빌에 대한 전문연구로 유명한 제라르 자크메의 오류도 바로 잡았다. 6월 말부터 아파치가 준동한다고 보도한 것은 『르 프티 파리지앵』이 아니라 『르 마탱』이다. Jacquemet, *Bellevill*, p. 344.

58) Kalifa, *L'encre*, p. 153.

저지른 대담한 습격들을 보도한 바 있다. 이 위협천만한 강패들이 흉악한 무훈을 계속하고 있다.⁵⁹⁾

수사 결과 그 6명의 습격자들은 소위 ‘아파치파’라는 범죄자 패거리 소속이라는 점이 밝혀졌다.⁶⁰⁾

여기서 단어 아파치의 생성 과정을 규명하는 작업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가능한데, 이에 대한 답변은 칼리파에게 넘기겠다.

낙오하여 차츰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젊은 노동자들의 존재는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그들을 아파치라는 깃발 아래 묶음으로써 중대한 위협으로 떠오르고 미지의 규모로 확대된다. 파리의 모든 주변인들이 아파치, 즉 악행을 서슴지 않는 대도시의 부랑자가 된 것이다. 분명하게 확립된 정체성을 지니게 된 아파치는 이제 어디에나 존재한다.⁶¹⁾

19세기 후반부터 급속도로 이루어진 산업화와 도시화에서 낙오하여 매춘과 비행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젊은 강패들은⁶²⁾ 아파치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남으로써, 일차대전 직전까지 프랑스 제3공화국의 부르주아 사회를 위협하는 주요 세력으로 간주된다. 그들에게 이름을 붙이는 공식적인 명명식은 1902년의 황금투구 사건을 계기로 거행되었지만, 그 식전행사는 이미 1900년 6월부터 시작된 셈이다.

그렇다면 단어 아파치가 1900년 이전에 출현했을 가능성은 없는가? 이 단어를 당시의 군소신문들이 먼저 사용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3대 일간지와 군소신문들의 역량과 영향력이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경찰 기록이나 문서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신문기사에서 사용된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뒷골목 사회나 경찰에서만 통용되는 단어는 신조어라고 볼 수 없다. 4대 일간지가 사용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위에서 살펴본 『르 마탱』의 아파치 관련 기사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거의 없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신문은 아파치 관련 사건들을 보도할 때마다 “본보가 이미 보도한 바 있다”라는 자랑을 빠뜨리지 않는다. 그런데 1900년 6월 30일자 기사에는

59) 『르 마탱』 1900년 7월 28일자 4면.

60) 『르 프티 파리지앵』 1900년 7월 28일자 3면.

61) Kalifa, *L'encre*, p. 153.

62) Deluermoz, *Chroniques*, pp. 13-14.

그런 문구가 없이 “얼마 전부터 암약하고 있는 아파치라고 알려진 범죄자들의 범행”을 보도하고 있다. 이 기사의 제목이 ‘벨빌의 야만인들’이라는 점에 주목하자. 이 신문이 아파치 관련 사건을 두 번째로 보도한 1900년 7월 28일자 기사의 제목은 ‘또 아파치’였다. 여기서 『르 마탱』이 벨에포크 시대의 범죄와 사건사고를 가장 자세하게 다룬 신문이라는 점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 신문은 창간호부터 영미 신문 스타일의 ‘NEWS’를 가장 중시했을 뿐만 아니라, 지면 역시 1899년 5월 25일자부터 6면으로 증면되었다. 『르 프티 파리지앵』은 1901년 10월 27일자, 『르 프티 주르날』은 1902년 1월 6일자부터 6면으로 증면되었다. 또 『르 프티 파리지앵』과 『르 프티 주르날』 1면에는 지면의 1/5 정도를 차지하는 연재소설이 게재되고 있었다. 연재소설은 뉴스와 정보전달 중심의 영미 신문과 차별되는 문학과 정치 중심의 프랑스 신문을 대표하는 특징이었다⁶³⁾. 『르 마탱』은 4면일 때나 6면일 때나 연재소설을 1면에 게재한 적이 없다. 2면 또는 3면에 지면의 1/6 정도로 연재소설 한 편만 실었을 뿐이다. 『르 프티 파리지앵』은 4면일 때는 1면과 2면 그리고 3면에 지면의 1/5 크기로 두 편의 연재소설을, 6면일 때는 1면 그리고 3면 또는 4면에 두 편의 연재소설을 게재했다. 가장 늦게 6면으로 증면한 『르 프티 주르날』은 4면일 때나 6면일 때나 1면과 다른 면들에 연재소설을 3편씩이나 실었다. 범죄와 사건사고에 할당할 수 있는 지면의 양에서 『르 프티 파리지앵』과 『르 프티 주르날』은 『르 마탱』의 상대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르 마탱』에 단어 아파치가 최초로 출현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앞으로 아파치를 더 자세하게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 일간지를 최우선적으로 뒤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왜 하필 1900년 여름에 단어 아파치가 최초로 출현했을까라는 의문이 남는다. 1900년 4월 15일에 시작된 만국박람회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11월 12일까지 계속되어 무려 5천만 이상의 관람객을 동원하여 역사에 길이 남은 이 엄청난 행사 기간 중에 무수한 범죄와 사건사고가 일어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국가적인 행사를 거행할 때는 잠재적인 위협세력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그들에 관해 적대적인 여론을 조성하여 범죄 소탕과 사회악 척결을 외치는 것이 동서고금의 진리이다. 1900년 12월 20일 파리시의회에서 경찰청장 루이 레핀(Louis Lépine) 역시 그렇게 했다.

63) 임종권, 『프랑스 저널리즘』, 133-137쪽.

유감스럽게도 만국박람회는 프랑스와 유럽 각지에서 몰려온 엄청난 사람들을 남겨 놓았습니다. 이들에게는 몇몇한 생계수단이 없습니다. (...) 일부는 불쌍한 사람들이지만 다른 일부는 대개 깡패, 강도, 도둑 그리고 특히 매춘부의 기동서 방들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자들을 척결하여 파리를 정화하는 것이 저의 임무입니다.⁶⁴⁾

19세기 후반부터 급속도로 진행된 산업화와 도시화에서 낙오하여 자기들만의 풍속과 법에 따라 살아가고 있던 파리 변두리의 젊은 깡패들이 만국박람회를 계기로 사회의 공적으로 지목되는 과정에서 유력 일간지들이 단어 아파치를 받아들여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필자의 추정은 다음번 논문에서 검증해 보려고 한다. 그리고 단어 아파치의 출현 배경을 설명한 후에, 문학과 영화에 나타난 아파치의 모습들을 분석함으로써 벨에포크 시대의 아파치가 함유하는 사회문화적 의미를 규명하는 작업을 후속 논문들에서 진행할 것이다.

(건국대 영화과)

〈투고일자: 2010. 1. 13, 심사일자: 2010. 2. 12, 게재확정일자: 2010. 2. 16〉

주제어 : 아파치(Apache), 벨에포크(Belle Epoque), 황금투구 사건(Affair Casque d'Or), 『르 마탱』(Le Matin), 『르 프티 파리지앵』(Le Petit Parisien), 『르 프티 주르날』(Le Petit Journal)

64) 『르 마탱』 1900년 12월 21일자 3면.

〈Résumé〉

Une étude sur les Apaches de la Belle Epoque
- la genèse du mot 'apache'

Ki-Hyung SONG

Le mot apache désigne malfaiteur ou voyou de Paris surtout, mais aussi de grande ville prêt à tous les mauvais coups à la Belle Epoque. Il est admis généralement que la paternité de ce mot reviendrait à Victor Morris du *Matin* ou peut-être à Arthur Dupin du *Petit Journal* et que ce mot a apparu pour la première fois en 1902 à l'occasion de l'affaire Casque d'Or. Mais nous avons confirmé que le mot a été utilisé pour la première fois dans *le Matin* du 30 juin 1900, après avoir consulté *Le Matin*, *Le Petit Parisien*, *Le Petit Journal* du premier janvier 1900 au premier juin 1902. De plus, c'est une bande anonyme de voyous de Belleville qui se nomme Apaches au moins quelque temps avant le 30 juin 1900. C'est l'affaire Casque d'Or qui popularise le mot 'Apaches' qui a été utilisé plus de dix fois dans *Le Matin* et *Le Petit Parisien* en 1900 et 1901.

〈Summary〉

**A Study of the Apaches in the French Belle Epoque
- the genesis of the word 'apache'**

Ki-Hyung SONG

The word “apache” signifies a criminal or a hoodlum of Paris in particular but also of any big city in the French Belle Epoque. It was generally admitted that this word was introduced either by Victor Morris of *Le Matin* or by Arthur Dupin of *Le Petit Journal* and appeared for the first time in 1902 on the occasion of the affair Casque d’Or. But it is not simply true. I, after investigating into *Le Matin*, *Le Petit Parisien*, and *Le Petit Journal* from January, 1900 to June, 1902, discovered that *Le Matin* employed it on the 30th, June, 1900: an anonymous band of hoodlums of Belleville called themselves Apaches some time before the 30th June, 1900. And the affair Casque d’Or did popularize this word Apaches, which had been employed more than 10 times from 1900 to 1901.